

어린이날 어린이에게 주는 글

소파 방정환

돈 없고 세력없는 탓으로 조선 사람들은 이제까지 내리 눌리고 짓밟히며 아프고 슬픈 생활만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불쌍한 삶 중에에서도, 그 쓰라린 생활 속에서도 또 한층 더 우리의 어림은 크게 자라날 어림이요 새로운 큰 것을 지어낼 어림입니다.

어른보다 10년 20년 새로운 세상을 지어낼 새 밑천을 가졌을 망정 결단코 결단코 어른들의 주머니 속 물건만 될 까닭이 없습니다. 20년 30년 낡은 어른들의 발밑에 눌려만 있을 까닭이 절대로 없습니다.

새로 피어날 새싹이 어느때까지든지 그대로 이어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한이 없이 뻗어갈 새 목숨, 새싹이 어느때까지든지 눌러 엎드려만 있지 않았습다. 5년전의 5월 초하루! 몇백년 몇천년 눌러 엎드려만 있던 조선의 어린이는 이 날부터 고개를 들고 이 날부터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가리운 것은 헤치고 덮힌 것은 벗겨 던지고 새 세상을 지어 놓을 새싹은 우뚝우뚝 뻗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서는 마치 5월 햇볕같이 찬란하고 5월의 새 잎(푸른 숲)같이 씩씩하고 또 5월의 샘물같이 맑고 개끗하였습니다. 어린 사람의 해방운동이 단체적으로 5백여처에 일어나고 어린 사람의 생명양식이 수십가지 잡지로 뒤이어 나와서 '어린이'의 살림이 커지고 또 넓어졌습니다.

아아, 거룩한 기념의 날 5월 초하루! 기울어진 조선의 새싹이 돌기 시작한날이 이 날이요, 생명도 얻은 조선의 어린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 이 날입니다.

엄동은 지나갔습니다. 적설(쌓인 눈)은 녹아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5월의 봄이 되었습니다. 눌리우는 사람의 발밑에 또 한겹 눌러온, 조선의 어린 민중들이여! 다 같이 나와 이 날을 기념합시다. 그리하여 다 같이 손목잡고 5월의 새 잎같이 뻗어 나갑시다. 우리의 생명은 뻗어 나가는데 있습니다. 조선의 희망은 우리의 커가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어린이날의 유래와 경과

1923년 5월 1일 제1회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올해 5월 5일 69회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제의 식민지 상황과 봉건제의 '장유유서'란 사고는 어른을 공경하라는 규범의 정신이 죽고 어린이는 어른을 위한 존재로 눌러 있게 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극복하고 어린이를 인격적으로 예우하며 또한 3.1운동 이후 전개된 국권회복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어린이 운동이 전개되게 되었다.

소파 방정환에 의해 이 운동은 널리 확산되게 되었는데 소파에게 천도교의 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인내천(人乃天)을 바탕으로 하여 '어린이도 한울님과 같이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는 사상과 동학 제2세 교주 최시형 선생의 법설 대인접물(對人接物)편에서 '아이를 매질하지 말라. 아이를 매질하는 것은 곧 한울님을 매질하는 것이니라.(他兒는 他天 이다.)'라는 덕목들은 천도교에서 어린이운동을 태동시킨 사상적 뿌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후 손병희씨와 그의 사위 방정환에 의해 어린이운동은 범사회적으로 전개되었다. 1921년 5월 1일 조직된 천도교 소년회가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의 날'로 선포하고 어린이의 인권을 존중해줄 것을 호소하는 유인물을 자동차를 앞세우고 창가대와 함께 종로 네거리를 누비며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때 뿌려진 '항상 10년 후의 조선을 생각하십시오'라는 유인물에서 한 가정, 한 사회, 한 나라가 장래의 희망을 둘 곳은 어린이임을 인식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후 1923년 소파를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일본 동경에서 '색동회'를 구성했으며 색동회는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그해 5월 1일 천도교소년회를 모태로 '불교소년회', '조선소년군'등이 참여하여 '소년 소년운동연합'이 구성되었고 이 단체의 주최로 천주교회당에서 제1회 어린이날 선포와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선언문이 낭독되고 '어른에게 드리는 글', '어린 동무에게'라는 선전물이 12만장이나 시내에 배포되었다. 1923년에 어린이날 선언문은 1924년 국제연맹총회에서 채택한 '아동의 권리선언(제네바선언)'보다 앞선 것으로 우리 민족의 어린이운동에 대한 선각자적 사상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1923년 3월 20일 소파 방정환씨가 최초 순수 아동잡지 '어린이'를 동경에서

편집하여 천도교소년회와 개벽사에서 창간했다.

어린이날 주기의 횟수는 1923년에 두고 있으나 1922년 행사로 인해 이견이 존재한다. 그 후 1927년 어린이날 기념식은 소파 방정환 중심의 민족주의적 소년운동단체인 '소년운동협회'와 정홍교씨 중심의 무산소년운동단체인 '5월회'가 1926년부터 시작된 대립으로 두 단체에서 따로 거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해에 두 단체가 결합하여 '조선소년연합회'로 되면서 1928년부터 5월 첫째 공일을 어린이날로 변경할 것을 결의했다. 이 단체는 그후 '조선소년총연맹'으로 개칭되었다.

1935, 1936년엔 일제의 탄압으로 형식적 행사에 그치게 되고 1937년엔 어린이날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1945년 해방 이후, 1946년의 제24회 어린이날 행사가 휘문중학교에서 치러지게 되었는데 이 때 5월 첫 공일은 계속 날자가 바뀌므로 1946년 5월 첫째 공일이 5일이어서 이때부터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확정했다.

어린이날이 공휴일로 제정된 과정은 1972년 색동회에서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제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 뒤 1975년 1월 16일자로 5월 5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어린이날 선언문

1923년 5월 1일

(어른에게 드리는 글)

1. 어린이를 내려다 보지 마시고 쳐다 보아 주시오.
1. 어린이를 가까이 하시어 자꾸 이야기하여 주시오.
1. 어린이에게 경어를 쓰시되 부드럽게 하여 주시오.
1. 이발이나 목욕, 의복같은 것은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1.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1. 산보와 원작같은 것을 가끔 가끔 시켜주시오.
1.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 타일러 주시오.
1.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1. 대우주의 뇌신경의 말초는 늙은이에게 있지 아니하고 젊은이게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어린이들에게만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여 주시오.

4차 방정환

(어린이들에게)

1. 돈은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도록 합시다.

1.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여러분 기리도 존대하도록 합시다.

1.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1. 꽃이나 풀을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1.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1. 입을 꼭 다물고 몸을 바르게 가지기로 합시다.

세로 이월날 세악이 어느때까지든지 그대로 이어만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이 없이 뽕의갈 세 폭은 세악이 어느때까지든지 높이 열드러만 있지 않
았습니다. 5년전의 5월 초하루 몇백년 몇천년 높이 열드러만 있던 조선의 어린이는
이 날부터 고개를 들고 이 날부터 피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리는 것은 이치고 달인 것은 빙거 먼지고 세 세상을 지어 놓을 세상은 무척무척 멀
어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가거리는 이거 5월 햇빛같이 찬란하고 5월의 세 앞(푸른 숲)같이 짙적이고 또 5
월의 생동같이 맑고 깨끗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의 양발은등이 단적으로 5백여척의 일
어나고 어떤 사람의 생명양식이 수십가지 합쳐서 되어야 나뉘는 어린이의 세 생명
의 거리고 또 넓어졌습니다.

아아, 거룩한 기념의 날 5월 초하루! 겨울이던 조선의 세악이 온기 시작한날이 이
날이고, 생명도 온온 조선의 어린이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날이 이 날입니다.

영광은 지나갔습니다. 적실(참인 눈)은 녹아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5월의 봄이 되
었습니다. 놀리우는 사람의 발밑에 또 안경 놓이온, 조선의 이월 천공들이여! 다 같이
나와 이 날을 기념합시다. 그러면 이 세 앞이 온갖하고 5월의 세 앞같이 밝아 나감서
다 우리와 생명은 밝아 나가는데 있습니다. 조선의 희망은 우리의 거기는 데이 있을
것입니다.